

## ‘연속된 공간, 내부 사회’에 관한 논고

- 건축과 도시 그리고 건축과 전원/시골의 연속적인 공간 관계를 중심으로

### Treatise on the Continuum of Spaces, Society of Interiors

- Focused on The Continuous Rapport of Space between Architecture and The City, and Architecture and The Countryside

**Author** 김명식 Kim, Myungshig / 정회원, Interior Architecture and Design, Ph.D.

**Abstract** The paper begins with the idea of the society of the continued rooms that building connects architectural space (building interior) and urban open space (urban interior) or countryside/rural open space (territorial interior). It gives an account of, through literature review, a theoretical possibility of integrating not only architecture and urbanism but also architecture and countryside/rural planning. The first site explores the continuously articulated and connected spaces between building interior, urban interior, and territorial interior, in understanding Alberti's analogy, "A house is a little city." (1452) The second site illustrates architecture as an open boundary and a spatial medium which makes building, urban, and territorial interiors connect and makes them continuous. There is an opportunity of reading the continued relations and the continua of spaces. The third site deals with the form of building that architecture creates for building interior (society of rooms) and urban interior (society of urban rooms), and moderates the interiors. The last site clarifies the territorial interior (society of countryside/rural rooms) that constitutes homogeneous spatiality moderated by architecture between building interior and urban interior. The paper discusses the society of the continued interiors(building/urban/territorial interiors) that ought to be a fundamental truth in the field of every project which deals with a unit of space. It logically clarifies the society of the interiors, not isolated and blocked off but multilayered and continued. It comes to the conclusion that the territorial interior should be subsumed under the design field and the society of the continued rooms ought to be considered as a united object of space in the fields of interior architecture/design, architecture, landscape, urbanism and countryside/rural planning. Ultimately, it aims at offering a departing point of discourse and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the future studies on urban interior and territorial interior.

**Keywords** 방들의 사회, 연속된 공간, 건물 내부, 도시 내부, 영토 내부  
Society of Rooms, Continued Space, Building Interior, Urban Interior, Territorial Interior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0세기 말 절정에 이른 분과학문의 체계는 21세기 전후로 융합의 학문 체계로 변하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더욱 큰 체계 속에서 세계의 질서 그리고 본질을 발견하려는 학문 간 융합은 더욱 본질적인 측면에서 우리 삶의 세계를 향상하려는 시도로부터 비롯되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과 학문의 발전양상은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에 5세기가 더 지난 "집은 작은 도시다"라고 언급한 알베르티(Leon Battista Alberti)의 건축에 관한 사고를 중요한 논제로 다시 부상하게끔 하였다. 건축의 공간(실내)을 도시의 공간(시내) 체계와 함께 생각

할 수 있게 이끄는 *De re aedificatoria*(Alberti, 1452, Book V.)의 이 대목은 융합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공간을 단위로 다루는 모든 프로젝트가 통합된 하나의 공간 속(내부)에서 이루어질 때 거주자의 질은 향상될 수 있다는 의미심장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

재조명해 볼 가치가 상당한 이것은 건물 내부의 공간성과 도시 내부의 공간성을 통합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와 기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알베르티는 약 15세기 전에 쓰인 비트루비우스의 책(*De architectura*, 약 BC 15년) 건축 십서(The Ten Books on Architecture)를 참고하여 동일한 구성(열 개의 장)으로 자신의 책 건축 십서(The Ten Books of Architecture)를 썼으며, 비트루비우스와 동시대 시칠리 태생 그리스 역사가자 디오도루스

(Diodorus Siculus)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그 기원은 어쩌면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갈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건축에 관한 이 케케묵은 사고들이 당대에 던지는 함의가 결코 작지 않다는 점이다.

한편 2009년 건축과 조경건축 그리고 도시계획의 융합(Urbanisms: Working with Doubt, p.37)을 말한 스티븐 홀의 생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집(실내)을 도시(시내)에 비유한 알베르티의 생각을 연상하게 하는데, 거주가 발생하는 전체의 공간 속에서, 즉 다양한 공간이 통합된 하나의 도시 공간 내부에서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각기 다른 대상을 디자인하는 실내건축/디자인, 건축, 조경건축 그리고 도시계획은 통합된 도시의 공간성(시내)과 함께 다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는 말하자면 거대한 집이고 반면에 전원주택은 작은 도시다.”(팔라디오, 1570) 알베르티의 비유를 연상하게 하는 전원/시골 주택을 도시에 비교하고 있는 팔라디오의 비유는 실내를 시내의 체계뿐만 아니라 전원/시골 공간(countryside/rural open space)의 체계와 함께 생각하게끔 사고의 확장을 가져온다. 이것은 시내와는 또 다른 하나의 통합된 공간, 즉 전원/시골 혹은 영토 내부(영내/territorial interior)를 말한다. 영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프로젝트는 시내에서처럼 동일하게 이해되어야 하고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팔라디오의 비유에서 유추해 낼 수 있다.

더욱 향상된 거주의 질을 위해 내부 공간에 의도된 의미를 형태화하는 것이 실내건축/디자인의 직능이므로, 전원/시골계획에서 다루는 영내 역시 이론적으로 그것의 영역과 대상이 된다. 앞서 언급한 실내(building interior)와 시내(urban interior) 그리고 영내(territorial interior)의 공간성은 내부 공간(interior)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건축과 도시 그리고 건축과 전원/시골의 공간을 하나의 세계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각기 다른 이질적인 그러나 연결되어 연속된 공간은 통합된 하나의 세계를 이루는 인간 삶의 전체 궤적을 구성한다.

‘연속된 공간, 내부 사회’에 관한 논고는 건축에서 다루는 공간이 도시로 열려 확장되고 동시에 통합되는 공간 개념의 발전과, 타 분야의 학문 그리고 인접학문의 융합을 장려하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배경과 더불어, 실내와 시내 그리고 실내와 영내가 연결되어 연속된 방들의 사회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고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이 논문은 연속된 내부 사회의 개념으로 거주 공간의 질과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건축과 도시계획 그리고 건축과 전원/시골계획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여지와 가능성, 나아가 통합을 담론으로 하는 연구의 출발점, 이론적 기초, 그리고 근거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1.2. 연구 방법 및 범위

실내건축/디자인, 건축, 조경건축 그리고 도시계획은 인간 삶의 세계가 펼쳐지는 공간을 대상으로 한다. 이 네 학문은 모두 삶의 공간 “안”, “속”, “내부”(“interior”)를 다루어 거주의 질을 향상하려는 소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향상된 내부 공간의 질을 구현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동일한 목적의 전원/시골계획이 있다. 발전을 거듭해온 전자의 학문에 비하면 후자는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고 활성화되지 못한 채 남겨져 있다.

통합된 하나의 세계 속에서 앞서 언급한 모든 학문들이 공간의 질을 더욱더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이 논문은 인간 삶의 전체 궤적을 구성하고 있는 연속된 공간, 내부의 사회와 관련한 이론적 배경과 근거를 문헌을 통해 추적해 나간다. 이것은 연속된 내부 사회의 개념으로 건축과 도시계획의 통합뿐만 아니라, 건축과 전원/시골계획을 통합할 수 있는 여지와 가능성을 찾기 위한 것이고 타진하기 위한 작업이다. 건축의 공간과 전원/시골의 열린 공간이 통합될 수 있는 연속된 공간의 사회를 다루는 동안 전원/시골계획에 더욱더 많은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이 논문의 주요 수행 과제는 건축과 도시 그리고 건축과 전원/시골의 통합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공간의 연속성 그리고 연속된 내부 공간의 사회와 관련된 내용을 문헌을 통해 추적하는 것이 첫 번째고, 이를 통해 더욱더 향상된 공간의 질을 구현할 수 있는 통합의 가능성과 통합의 담론을 이끌어 수 있는 이론적 기초와 근거를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그 다음이다. 연구 방법은 문헌 조사를 통해서 논점을 기술하는 논리적 전개로 이루어지고 그 범위는 지리적으로는 서양(유럽과 아메리카) 시기적으로는 앞서 언급한 르네상스(인 알베르티의 건축 십서)에서부터 현재까지의 문헌으로 제한한다.

## 2. 알베르티의 비유 그리고 시내(혹은 영내)로 열린 실내

건축의 공간(건물 내부/실내)과 도시의 공간(도시 내부/시내) 그리고 전원/시골의 공간(영토 내부/영내)은 연속되어 연결되어 있다. 루이스 칸이 말한 것처럼 건축은 방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방들의 사회”(a society of rooms)를 만드는 것으로 끝난다.<sup>1)</sup> 칸의 생각을 응용하면 실내건축/디자인, 건축, 조경건축, 도시계획

1) 여기서 방은 실내의 방뿐만 아니라 동시에 “합의에 의한 방”, 즉 거리를 말한다. 참고 Kahn, Louis I., “The Room, the Street and Human Agreement.” (Text of AIA Gold Medal acceptance speech, Detroit, June 24, 1971), AIA Journal 56, no.3, September 1971, pp.33-34

그리고 전원/시골계획은 실내와 시내 그리고 영내로 이루어진 삶의 공간 속에서 궁극적으로 거주자의 질 향상을 위해 '실내 방들의 사회'와 '시내 방들의 사회' 그리고 '영내 방들의 사회'를 만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방들의 사회는 연속된 공간의 모임으로써 그 시작은 실내인 방에서 출발한다. 방은 사물의 질서 속에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위치(위상)의 확실한 파악이고, 실외(시내 방 혹은 영내 방)와는 다르게 친밀감과 애착과 같은 심리가 발생하는 곳이다.<sup>2)</sup> 그곳은 외부와 구별되는 우리의 몸짓과 행위를 조장하거나 부추겨 어떠한 감정이나 상황 따위가 정도에 맞게(때때로 심하게) 일어나도록 영향을 미친다.

건축의 형태, 즉 건물은 이 두 종류의 다른 현상이 발생하는 방들의 사회(실내와 시내 혹은 영내) 사이에 존재한다. 그것은 문과 창문을 열어 두 개의 사회를 연결한다. 그래서 건축은 항상 다른 성격으로 구성된 두 개의 사회를 연결하려는 목적을 함의하고 있다. 다르게 말하면, 건물은 둘 사이에 연속된 공간의 질서 속에서 소통의 형태로 등장한다. 중요한 것은 건물이 어떻게 두 개의 사회를 연결하는가와 두 공간 사이에 어떻게 연결되어 소통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것의 이해는 집을 도시에 비유한 알베르티의 사고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sup>3)</sup> 알베르티는 비유를 통해 도시의 공간에서 실현되어야 할 건축의 공간 구성에 열개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으로부터 실내 방들의 사회와 시내 방들의 사회 사이에 측정 가능한 관계를 확립할 수 있는 기술적인 틀을 유추해 낼 수 있다.

“집은 작은 도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시의 건물과 관계되는 거의 모든 것에 관한 안목을 가질 수 있는 건물 내부에 존재한다. 이것은 불편함이 전혀 없고 삶의 우미, 평온 혹은 평안함을 제공하며 필요한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는 튼실한 도시의 건물이다.”<sup>4)</sup>

르네상스 건축가 알베르티의 비유, “집은 작은 도시다”는 집의 특성들을 도시의 구조와 비교하기 위해서 사용되지는 않았다. 그것은 오히려 실내 공간과 시내 공간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적인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sup>5)</sup> 그래서 건축의 근본적인 고려는 시내 상황이

고려된 실내 공간의 구성(실내 방들의 사회)을 의미한다. 이러한 알베르티의 생각은 다음에 잘 나타나 있다.

“건축에서 우리의 모든 기술과 지식 그리고 창조의 힘은 공간 구획에 있어 필수다. 왜냐하면, 편리함, 즐거움 그리고 아름다움을 위해 적절히 질서화된 작업에서 전체 건물의 각 부분들 그리고 이러한 각 부분들의 전체, 이 단어를 사용하자면 모든 선과 각의 합의와 결합은 그 공간 구획 자체에 의해 배분되고 배치되기 때문이다. 철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한 도시가 하나의 큰 집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반대로 한 집은 하나의 작은 도시가 된다...그 집의 구성 요소는 뜰, 홀, 응접실, 현관과 같은 대단히 많은 작은 집들이다...본체의 구성 요소는 서로 부합한다. 그래서 하나의 건물 안에서 한 부분이 다른 부분에 응답해야 들어맞는다.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결합은 대단한 구성 요소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과연 그것은 사적인 건물에서 사용되었던 것보다 더 커다란 벽돌과 다른 재료들을 큰 공공건물에 사용했었던 고대인에 의해 꽤 쉽게 관찰되었었다. 그러므로 모든 구성 요소는 알맞은 장소와 적절한 상황에 놓여야만 한다...적절하지 못한 장소에서가 아니라 어느 다른 곳에서 더 적합할 수 없는 그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상황 속에서.”<sup>6)</sup>

알베르티는 건축을 실내와 시내 상황 사이에서 가장 적절한 관계로 형태화되어야 하는 건물의 예술(the art of building)로 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도시의 예술로 견인하고 있다. 다양한 내부 공간의 연속체를 분절하는 건축은 궁극적으로 건물의 예술과 도시 예술의 통합된 형태를 획득한다. 이것이 진정한 건축(building art)이고 도시 예술의 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건축이 실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건물 본체의 모든 구성 요소들이 시내와 함께 적합하게 들어맞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도시의 예술(예컨대, 건물의 조형성)은 실내와 시내의 상황 속 관계들을 증대하고 연결하는 형태화 작업에서 나온다. 이렇게 형태화된 집들이 도시의 구성 요소가 되며 도시는 수많은 집들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은 각각의 실내, 즉 집단적 내부에서 나와 공동체의

는 공적 영역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알베르티가 강조하듯이 집의 입구는 실내를 위한 입구이기도 하지만 시내와 영내를 위한 입구이기도 하다. 그래서 현관은 거실이나 정원으로 들어가기 전 그리고 광장이나 공원으로 들어가기 전의 복도와 거리 사이에 있는 전이적인 공간이다. 이 전이적인 공간은 어느 한쪽 영역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알베르티에 따르면 복도 전 현관 홀과 응접실은 도시 구성원을 위한 공간이다.

6) Alberti, “Book I. Chap. IX. Of the Partition, and of the Origin of Building,” in *op. cit.*, p.13 참고 같은 쪽, “가장 위엄 있어야 하는 구조의 부분이 멀리 떨어진 모퉁이로 가장 공적이어야 하는 것이 사적인 곳으로 내몰리지도, 가장 사적이어야 하는 것이 너무 눈에 잘 띄는 뚜렷한 곳에 설치되지도 않아야 한다.”

2) 참고 Relph, Edward, *Place and Placelessness*, Pion, London, 1976, p.38

3) *De re aedificatoria*의 Book V는 처음으로 건축의 공간과 도시의 공간을 함께 고려하여 기술한 내용의 문헌으로 볼 수 있다.

4) Alberti, Leon Battista, *The Ten Books of Architecture: The 1755 Leoni Edition (De re aedificatoria, written between 1443-52, first published in Florence in 1485)*, Dover Publications, New York, 1986, p.100

5) 일반적으로 실내의 공간 복도, 거실, 뜰(정원) 등은 시내의 공간 거리, 광장, 공원 등으로 비교될 수 있다. 거실과 뜰은 가족 구성원들이 모이는 사적 영역이고 광장 혹은 공원은 도시 구성원들이 모이

공간, 즉 시내의 형태로 드러난다. 알베르티가 언급하고 있듯이 주목할 것은 건물 본체 모든 요소들은 내부와 외부 사이를 맞물리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들의 각 부분은 각각의 상황을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다른 부분에 부응하면서 가장 적합한 상황에 놓여야만 한다. 다시 말해 건물의 구성 요소는 공간 구성 체계 속에서 실내뿐만 아니라 시내에 응답해야 하며 도시의 구성 요소와 서로 부합해야 한다. 그러므로 시내는 도시 공간의 연속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물의 부분들로 구성된다.<sup>7)</sup> 이런 점에서 건물 본체는 실내 방들과 시내 방들을 붙들어 매고 있는 공간의 매개체가 된다. 이 매개체는 둘을 잇기 위해 사적이기도 공적이기도 한 경계로서 존재한다. 이 경계에 문지방과 같은 전이의 장소가 존재한다.<sup>8)</sup>

### 3. 열린 경계의 건축

건물 형태로 시각화된 건축은 단순하게 두 개의 다른 영역 사이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순히 전이적인 형태가 아니고 그 자체로 전이다. 바실리 칸딘스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모든 현상은 두 개의 방식으로 경험될 수 있다. 이 두 방식은 독단적이지 않고 현상의 두 가지 속성들로부터, 즉 외부로 혹은 내부로 그것의 본성과 특색이 발전하는 현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sup>9)</sup> 비록 칸딘스키가 이차원적인 예술의 작업을 설명할 때 형태가 갖는 외부와 내부의 현상에 대한 두 방식을 말하지만, 이것은 건축, 즉 삼차원의 건물 형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건물 형태 그 자체가 두 개의 현상, 즉 내부성과 외부성을 암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내부와 외부의 표면으로 이루어진 건물 형태는 동시에 실내와 시내 혹은 영내의 현상에 속한다.

건물 형태는 두 개의 방식으로 경험될 수 있는 이중적인 공간성과 현상을 차단하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물을 열어 서로를 연결하면서 드러낸다. 내부성과 외부성 그리고 이에 따른 현상은 건물이 단협의 요소와 함께 열림의 요소(예컨대, 창문과 문)로 서로를 연결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관찰되거나 하나로 연결된 공간의 연속체로 인식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건물 벽, 문,

창문, 지붕 등과 같은 것은 단순히 내부의 현상에 속하는 건물의 요소일 뿐만 아니라 외부(도시/영토)의 현상에 속하는 건물의 요소이다. 두 현상 사이에 존재하는 이 요소는 서로를 교합시켜 맞물리게 하는 하나의 경계다. 그래서 건물에 의해 만들어진 공간은 이러한 열림과 단협의 요소, 즉 경계의 요소에 의해 외부(시내 혹은 영내)와 접촉하게 된다. 그러므로 경계는 공간을 정의하는 요소와 공간을 연결하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sup>10)</sup> 결국, 이것은 두 공간을 정의하거나 가르는 것만이 아니라 두 공간을 묶어 연결하여 두 개의 다른 공간성을 암시하는 경계로 인식될 수 있다. 공간은 절연되어 있지도 차단되어 있지도 않다. 이 경계의 형태 덕분에 내외부는 서로 연속되어 나타난다.

건물은 내부 공간의 영역만을 위해 임의적이거나 독단적으로 계획되는 경계가 아니다.<sup>11)</sup> 브루노 제비가 이미 언급했듯이 그것은 오히려 도시/영토의 공간에 부합하여 계획된다. 건물의 벽 특히 정면(Façade)은 실내를 한정하는 혹은 실내의 시작을 암시하는 경계로만 구성되지 않으며, 거리, 공원, 광장과 같은 시내 또는 영내의 시작을 알리는 경계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건물은 건물/도시 혹은 건물/영토의 공간 속(즉, 실내와 시내 혹은 실내와 영내)에서 특징지어져야 한다.<sup>12)</sup> 요컨대, 경계의 요소, 즉 건물의 요소는 실내를 정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내 혹은 영내를 정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공간을 정의하는 경계의 요소는 두 개의 영역 사이에서 둘의 환경과 특징을 정의하거나 조장하여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낸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결정적으로 실내 환경과 특징을 결정하고 동시에 시내 또는 영내 환경과 특징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sup>13)</sup> 경계의 요소는 특히 열림의 요소는 경계의 본성으로부터 발전하는 경계의 내부 현상과 외부 현상을 결속한다. 개구부에 의한 건물의 열린 경계는 두 개의 영역이 서로 만나는 곳이고 이것에 의해 이분된 공간성은 서로 연결된다. 프로이트가 얘기

7) Bohigas, Oriol, “Spazi per a gente.” Spazio e società, n.24, December, 1983, pp.8-13

8) 참고 Abercrombie, Stanley, A Philosophy of Interior Design, Happer & Row, New York, 1990, p.7: “입구는 분명히 물리적인 전이 지점이며 또한 외부에 대한 내부의 기억과 그러한 기억에 근거한 이상을 불러일으키는 정신적인 지점이다...“문지방은 신성한 것이다.”...입구는 또한 거주자가 외부 세계의 불확실성에 노출된 대부분을 느끼는 내부의 지점이다.”

9) Kandinsky, Wassily, Point and Line to Plane, Dover Publications, New York, 1979, p.17 참고 Diodato, Roberto, Aesthetics of the Virtual,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Albany, 2012, p.9

10) 참고 Heidegger, Martin, Poetry, Language, Thought, (translation and an introduction by Albert Hofstadter), Perennial Classics, New York, (originally published by Harper & Row, 1971), 2001, pp.82, 152: “경계는 무언가가 멈추고 있는 것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경계는 그리스인이 인지했던 것처럼, 무언가가 그것의 존재화를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참고 Abercrombie, *op. cit.*, p.41 그리고 Norberg-Schulz, Christian, Genius Loci: Toward a Phenomenology of Architecture, Rizzoli, New York, 1980, p.13

11) 참고 Norberg-Schulz, *op. cit.*, p.13

12) Zevi, Bruno, Architecture as Space: How to Look at Architecture, (translation by Milton Gendel), Horizon Press, New York, 1957, p.282

13) Norberg-Schulz, *op. cit.*, p.14 참고 p.15: “이러한 특색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특성을 옮기는데 기여하는 “관습적인 요소”가 될지 모른다. 그러므로 경계 내에서 특성과 공간은 함께 하나가 된다. 그리고 우리는 “건축을 내부와 외부 사이 벽”으로 정의하는 벤투리 에 동의할지도 모른다.” 참고 Venturi, Robert, Complexity and Contradiction in Architecture (first published in 1966), Architectural Press, London, 1977, p.89

한 것처럼 이곳은 공간 예술이 탄생하는 성소일지도 모른다.<sup>14)</sup>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요소들이 이질적인 공간이 연결되어 전체로 인식되는 하나의 유기체가 되게 한다는 점이다.<sup>15)</sup> 따라서 연속된 공간의 인식은 건축에 의해 태어나는 건물의 형태에 거부할 수 없는 내재적 필수 요소로 작용하여야 한다.

#### 4. 내부 공간(실내와 시내)의 사회를 연결하는 건축

건물의 형태는 다양한 공간을 나누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공간과 대조 혹은 대비되는 공간을 만들지 않고 공간의 증식 그리고 무질서를 중재하고 조정하여 연속성을 깨뜨리지 않는 연속된 공간의 형태, 즉 질서화된 공간의 사회를 만든다. 그래서 건물 형태는 연속된 공간의 형태 속 공간의 휴지(休止)다. 이 휴지는 두 개의 다른 현상, 앞서 언급한 내부성과 외부성을 포함하는 영역이고 연결하는 경계다. 그것은 건물 내부의 방들로 이루어지는 사회와 도시 혹은 영토의 방들로 이루어지는 사회 사이에 만들어지는데, 공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섬세하게 계획된 열림으로써 실현된다. 요컨대, 건축이 만들어내는 건물의 형태는 대기(도시와 영토)에 속하는 체적의 가치와 그 형태 내부의 가치를 타당하게 정의하면서 그리고 두 사회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들을 함께 고려하면서 치밀하게 계획하는 것에서 비롯된다.<sup>16)</sup>

내부의 사회는 건물이 공간을 분절한 장소, 즉 구별된 두 개의 다른 공간 영역을 말한다. 건물 내부의 방들과 건물 밖의 방들을 말하는데 제한된 체적의 전자는 사적인 문화로 이루어지나 그것의 확장을 한정하지 않고 후자를 향해 펼쳐진다. 후자는 공공의 영역인 공동체의 문화로 이루어지고 자유롭고 지속적이며 연속적으로 체적의 확장을 가져온다.<sup>17)</sup>

방들의 사회에 관한 개념은 칸의 건축에 대한 개념과 연관이 있다. 칸은 이 개념을 훨씬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다. 1970년 전후로 칸은 당시 성행하던 자유로운 평면 계획 대신에 방을 건축의 기본 개체로 사용하였다.<sup>18)</sup> 칸

의 이 방에 대한 개념은 정확히 거주자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방들의 사회로 건축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건축은 방, 즉 방들의 회합을 만드는 것이다.”<sup>19)</sup> 방들의 사회는 방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색들을 연결하는 요소와 독특한 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함께 짜이고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다.<sup>20)</sup> 그러나 이 개념은 건물 내부에만 엄격하게 제한되지 않는다.

앞서 언급했듯이, 방들 사이에 경계가 놓여 있고 이는 방을 닫고 열리게 한다. 방들의 구성 요소 중 개구부들 예컨대, 전이적인 형태이면서 열린 경계인 창과 문은 건축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다. 이들을 엮으로써 실내가 시내 혹은 영내를 만나게 된다. 또한, 그것은 시내 혹은 영내의 방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 여기서 일련의 연속적인 방들의 흐름과 울동 그리고 연속성이 발생한다. 하나의 방은 다른 차원의 방으로 이어져 있다.<sup>21)</sup> 각 방은 독립된 특유의 특성을 가지나 서로 연결된다. 이것은 누군가 건축적인 감상과 함께 들어가는 혹은 나오는 일련의 관계로 이어지는 방들의 순차(順次/sequence) 혹은 연속된 방들의 사회를 통하여 획득할 수 있는 가치와 함께 직접적으로 인간 삶의 질 향상에 작용한다.

디오도루스와 알베르티가 말했던 것처럼, 주량 현관과 내부 현관 그리고 홀은 단순히 내부의 사적 사회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외부의 공적 사회, 즉 거주인과 도시민을 위해 공용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더 깊은 다른 내부의 방들은 거주인을 위한 것이지만 현관과 홀 그리고 응접실과 같은 공간은 도시의 열린 광장과 거리와 같은 공적인 방으로서 다른 구성원이 접촉하는 곳이

18) 참고 Kahn, op. cit. 칸은 1950년대 중반까지 유연하고 기능적인 방을 가능하게 하는 제한된 칸막이벽들과 함께 현대의 자유롭게 열린 평면 계획의 관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에 그리고 칸이 “건축은 하나의 방을 만들으로써 나온다.”라는 개념을 채택하기 전까지 그는 “열린” 평면 계획의 관습을 따랐다. 1970년 전후로 그는 하나의 방이 건축의 기본 단위인 개념 그리고 각 방은 고유의 특질 그리고 특별한 기능을 갖는다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그래서 “방들의 사회”는 거주자들 사이에서 공동체의 의미가 스며들 수 있는 의도된 방들을 조직하기 위한 건물 평면 계획의 개념이었다.

19) Louis I. Kahn's sketchbook, ca. 1969

20) Kahn, op. cit., “평면은 방들의 사회다. 이 방들은 각자 가지고 있는 특유의 본성을 강화하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방들의 사회는 방들의 특질을 가지고 있는 연결의 요소들과 함께 짜여있다.”

21) Le Corbusier, *Precisions on the present state of architecture and city planning*: with an American prologue, a Brazilian corollary followed by *The temperature of Paris and The atmosphere of Moscow* (translation by Edith Schreiber Aujame), MIT Press, Cambridge, MA 1991, pp.72-73 참고 p.73: “그리고 여러분이 방에 들어가는 방식에 따라, 즉 그 방의 벽에 있는 문의 장소에 따라 그 느낌은 다를 것이다.” 그리고 Zevi, op. cit., p.57: “건축 작업의 특색 있는 가치는 연속적인 관점에서부터 그것의 내부 공간을 경험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참고 Kandinsky, op. cit., p.17: “우리가 문을 열어 온둔처에서 벗어나 바깥의 현실로 뛰어드는 순간, 우리는 이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감각과 함께 그것의 박동을 경험한다. 지속해서 변하는 조성의 주기와 소리의 속도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휘감았다 사라지는 상태로 만든다.”

14) 참고 Mills, Jon (ed.), *Rereading Freud: Psychoanalysis through Philosoph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Albany, 2004, p.63

15) Zevi, op. cit., p.105

16) Kahn, op. cit., pp.33-34: “건축가는 도시설계, 도시계획 그리고 건축이 마치 다른 직업인 것처럼 직업의 상업적인 분화를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 건축가는 가장 작은 집에서부터 가장 큰 복합 단지 혹은 도시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다. 전문화가 형태 현시의 본질을 이것과 분리할 수 없는 부분들이 오직 독립체로 구현되어 영방으로 만든다.”

17) Focillon, Henri, *The Life of Forms in Art*, (La vie des forms, 1934), (translation by Charles B. Hogan and George Kubler), Zone Books, New York, 1992, p.79

다.<sup>22)</sup> 언급한 두 명의 방에 대한 생각은 칸의 방”들의 사회”에 관한 개념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칸이 말한 바로는 거리는 “합의에 의한 방”이고 “공동체의 방”이다. 거리는 시내 혹은 영내로 들어가기 전 위에서 언급한 실내의 전이적인 방들과 연결되어 있다. 실내 복도와 다르지 않은 시내 혹은 영내의 거리는 다른 거리, 광장, 공원 등으로 이어져 있다.<sup>23)</sup> 이 합의에 의한 방과 공동체의 방은 거주를 위한 내재적 요구로 여겨지는 조화 속에서 공동성과 연관성에 의해 만들어진다.<sup>24)</sup> 이렇게 만들어지는 방들의 사회, 즉 다양한 방들의 특색에 의해 측정되는 공동체의 합의에 의한 방들의 사회는 실내와 시내 혹은 영내의 인간 전체 삶의 세계를 위해 존재한다. 칸의 관점과 부합하는 건축은 실내와 시내 혹은 영내 방들의 특색을 인지함으로써 그리고 관계의 맥을 느낌으로써 이해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건축은 실내와 시내 그리고 영내의 구조가 공동체를 위한 의미심장한 방들을 생산할 수 있고, 각각의 방은 사회적으로 또한 물리적으로 조화롭게 연결되어 전체 방들의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연속된 공간의 사회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누구든 하나의 방에서 다른 방으로 이동하거나 들어가거나 나오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실내 방들은 전이적인 방들을 통해서 시내 혹은 영내 방들과 연결되어 있다. 복도, 현관, 벽, 창문, 대문 그리고 거리는 서로 잘 짜여서 건물이 건물과 도시 혹은 영토 방들의 사회 안에서 연결의 건축(“an architecture of connection”)으로 존재할 수 있게 만든다.<sup>25)</sup> 그러므로 건축은 살기에 적합한 그리고 도시/영토의 방들과 건물 방들의 사회를 통합하는 장소가 되게 하는 방의 사회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건물의 예술임과 동시에 도시(혹은 영토)의 예술을 창조하는 예술로서의 건축이다. 이렇게 건축에 의해 두 개의 사회가 연속적으로 연결된 곳은 거주하기에 좋은 방들의 사회다.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작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삶의 세계에 거주자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다주는 것이기 때문에 방들의 사회를 창조하는 것은 건축의 존재 이유이다.

## 5. 연속된 내부 공간 실내, 시내, 영내의 사회

22) Alberti, op. cit., p.84

23) Kahn, op. cit., “거리는 각자의 집주인에 의해 공용으로 사용되는 도시에 제공된다.” 비트루비우스와 알베르티처럼 팔라디오 또한 “길은 짧고, 편안하고, 안전하고, 기분 좋고 아름다워야 한다...도시에서처럼 아름다움은 세련된 건물에 의해 거리에 더해진다.”라고 실내와 시내 사이 관계를 언급하고 있다. 참고 Palladio, Andrea, The Four Books of Architecture, Dover Publications, New York, 1965, pp.58-59

24) Kahn, op. cit., pp.33-34

25) Ibid.,

산업혁명 이후 19세기 건축은 도시 내부의 사회에 초점을 맞추었다. 소위 도시계획(town or city planning)이 그것이다.<sup>26)</sup> 주요 관심은 근대 건축의 원리 중에 하나인 열린 미학으로서의 연속성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건축의 내부와 외부의 거대한 유리창과 철재 프레임의 유리벽을 사용함으로써 내부와 외부 사이의 연속성을 완벽하게 확립하려는 근대 건축의 의미로 시각적인 연속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철과 유리는 내외부 연속적인 방들의 사회를 창조하기 위한 중요한 재료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들이 서로 연속적으로 연결되는 방식과 방법이였다. 왜냐하면, 방들이 일련의 움직임, 몸짓, 행위, 사용 등에 의해 본질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공간의 가치는 물질의 형태들이 다른 공간(사적 혹은 공적 공간)을 포용하고 연결하여 만들어내는 연속의 어울림 속에 놓여 있다. 이것을 분절, 유기적인 전체 혹은 확장이라 부를 수 있다. 그것은 분명히 물질형태들과 공간적인 형태들이 하나로 통합된 형태다. 건축의 아름다움 혹은 가치는 여기에 있다.<sup>27)</sup> 공간의 순차, 유기적인 공간, 형태의 연속성, 내부의 연속체는 도시와 사회를 향해 연속적인 특징의 형태를 추구했던 근대 건축의 공간 특성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그것의 가치는 건축이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특성인 방들(building/urban/territorial rooms)의 사회에 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실내와 시내 뿐만 아니라 실내와 영내 역시 동일하다는 점이다. 영내 자연을 향한 공간의 순차, 유기적인 공간, 연속적인 공간의 형태는 시내의 그것과 동일한 체계를 지닌다.

“나는 산책을 위해 나갔고 해 질 녘까지 머물기로 했다. 왜냐하면, 나가는 것이 정말로 들어가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sup>28)</sup> 스코틀랜드 태생의 미국인으로 자연주의자이며 작가인 존 무어(1938)의 이 말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실외에 대한 공간 개념을 다시 한 번

26) Zevi, op. cit., p.139: “그러나 19세기 건축의 진정한 미덕은 그것의 외부 공간, 도시계획에 존재한다. 주로 새로운 수송의 수단과 도시로 향한 대량 이주와 같이 산업혁명으로부터 야기된 거대한 현상 이후에 19세기는 도시 공간에 대한 문제점으로 진행되었고, 고대 도시의 벽 너머로 발전되었으며, 변경지대를 만들었고, 현대라는 의미에서 도시계획의 사회적 주제들을 공식화했으며, 전일도시를 세웠다. 이러한 공헌의 중요성은 만약 우리가 건축에 관한 것이 아닌 대중에게 시급한 지침서가 필요한 분야인 도시계획에 관하여 기술한다면, 이 19세기는 역사가들이나 비평가들의 통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외부 공간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시기가 될지도 모르는 꽤 결정적인 것이 된다.”

27) 참고 Arnheim, Rudolf, The Dynamics of Architectural Form,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Los Angeles, London, 1977, p.204: “누군가의 집은 풍경 속으로 흘러들어가고 그것에 열리고 그것이 들어가지도 한다. 이런 경우에 그 내부 삶의 질서들과 그 환경의 질서들은 그것 둘을 통합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질서의 부분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건축은 방들 사이에 중개자 그리고 방들의 연속체 사이를 중개하는 형태의 환경 설정이 틀림없다.

28) Wolfe, Linnie Marsh (ed.), John of the Mountains: The Unpublished Journals of John Muir, (first published in 1938),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Wisconsin, 1979, p.427

천착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 그는 자연을 도시의 벽돌 벽과 포장된 거리로부터 나오는 도시의 방과 다른 정의하기 힘든 성질로서 매력을 가지고 있는 방 혹은 집과 같이 이해하고 있다.<sup>29)</sup> 이것은 제비가 언급했던 “전원/시골에 남겨놓은 인간의 흔적”이 결코 불가피한 선택 혹은 필연의 행위라고만 여기게 하지 않는다.<sup>30)</sup>

건축은 도시의 형성과 삶뿐만 아니라 전원/시골의 형성과 삶 역시 설정한다. 알베르티가 기술하였듯이, “마을이 없는 기분 좋은 집”은 전원/시골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가능성이 있는 이를테면, “건강”, “청정한 공기”, “기분 좋은 풍경”, “꽃으로 덮인 목초지”, “탁 트인 들판”, “그늘이 드리워진 수풀”, “맑은 개울”, “수영하기에 좋은 맑고 깨끗한 시내와 호수”가 있는 곳이다.<sup>31)</sup> 이러한 곳은 이미 경계를 정하는 수많은 공간 정의의 요소들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된 공간들은 시내에 비해 더욱더 자유로이, 즐겁게, 그리고 기분 좋게 점유할 수 있는 삶의 공간이고 디자인 대상 그리고 건축의 대상 공간이다. 이 위에 건축은 의도된 의미의 공간을 창조한다. 그래서 건축의 형태(건물)는 전원/시골의 공간 역시 실내의 연속적으로 조직된 공간, 즉 방들의 사회와 실외의 이미 조직되어 있는 공간, 영내 방들의 사회를 고려하여 건축 공간의 가치와 질 향상을 가져온다.

팔라디오는 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도시의 집 속에 필요한 모든 그러한 고려들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는 말하자면 거대한 집이고 반면에 전원 주택은 작은 도시다.”<sup>32)</sup> 시내든 영내든 관계없이 건축은

두 종류의 내부(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인 방의 사회)를 창조하기 위해 건물의 경계로 서게 되는 것은 분명하다.<sup>33)</sup> 그렇기 때문에 건물 형태, 즉 건축의 미적 가치는 두 사회(실내와 영내)에 의해 결정된다. 건축은 그것의 내적 요구(실내, 취향, 개성 등)와 그것의 외적 요구(영내, 환경, 지형, 기후 등)로부터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sup>34)</sup> 이것은 결국 건축이 만들어내는 실내 방들의 사회와 건축이 기여하는 영내 방들의 사회에 공간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6. 결론

시내나 영내는 실내의 사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연속된 동질의 체계를 갖는다. 또한 각각의 사회는 그 자체로 연속된 공간의 질서로 구성되고 실내와 시내 그리고 실내와 영내는 서로 긴밀한 관계 속에서 연속된 공간의 사회로 형성된다. 건축은 그러한 사회 속에서 공간적 존재인 건물의 형태로 탄생되어야 하고 더욱 긴밀한 공간의 사회를 구축해야 한다. 이것은 어떤 시대 상황과 정신, 역사와 문맥, 유행과 취향에 선행하는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프로젝트의 기율이어야 한다. 그래서 연속된 공간, 내부 사회 속에서 건축은 거주자의 질 향상을 위해 건물의 예술과 도시의 예술(혹은 전원/시골의 예술)로서 발아해야 한다.

이 연속된 공간, 내부 사회를 파악하기 위해 알베르티의 비유를 통해 연속의 공간으로 이루어진 시내(혹은 영내)로 열린 실내를 처음으로 다루었다. 건축은 공간의 매개체로서 또한 경계로서 실내와 시내 사이에서 가장 적합한 관계로 맞춰져 공간을 분절하고 통합하는 형태의 획득이라고 기술하는 본문의 첫 장은 연속된 공간의 이해에 접근하고 있다.

다음 장 ‘열린 경계의 건축’에서 밝히고 있듯이, 경계로서 건물은 실내와 시내를 정의하면서 동시에 두 현상을 결속하여 공간의 연속된 관계를 설정한다. 따라서 결속된 이분의 공간성은 전체로 인식되는 하나의 유기체 혹은 사회체로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은 세심한 주의와 근면함과 함께 편리하고 건강한 장소를 조사하고 찾아내기 위한 현명한 건축가의 직능이기 때문이다.” 전원/시골은 사적인 용무를 위한 개인뿐만 아니라 공적인 용무를 위한 복수의 사람에게도 편리한 곳이다. 참고 Alberti, op. cit., pp.188-189 그리고 Archer, op. cit., pp.72-73

29) Roosevelt, Theodore, “John Muir: An Appreciation.” Outlook, vol. 109, January 16, 1915, pp.27-28. 참고 Wolfe, op. cit., p.321: “사람들 혹은 동물들의 모든 근거지가 아름답게 별이 빛나는 창공과 같은 지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러한 장소들 중 산봉우리에 홀로 서 있으면 마멋과 새와 같이 나뭇잎과 이끼, 천막 혹은 돌집과 같이 우리가 만들고 있는 특별한 보금자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모두 하나의 방인 집, 창공이 지붕인 세계 속에서 거주하며 어떠한 자취도 남기지 않으며 전체의 공간을 향해하고 있는 우리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30) Zevi, op. cit., p.15: “누구도 도시의 삶을 위한 배경을 만드는 그리고 전원/시골에 인간의 자취를 남기게 하는 건물을 외면할 수 없다.” 비트루비우스 역시 이것을 언급하고 있다. 참고 Pollio, Vitruvius, Vitruvius: The Ten Books on Architecture, (translation by Morris Hicky Morgan, originally published in 1914), Dover Publications, New York, 1960, pp.38-41

31) Archer, John, Architecture and Suburbia: From English Villa to American Dream House, 1690-2000, Th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2005, p.73 참고 Pollio, op. cit., pp.38-41

32) Palladio, op. cit., p.47 비록 디자인 요소나 환경이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건축의 개념은 동일하다. 참고 p.46: “신사에게 도시의 집들은 분명히 대단히 훌륭하고 편리하다...그러나 아마도 그는 전원/시골의 집에서 얻을 수 있는 위안과 유용성이 훨씬 적다고 하지 못할 것이다...도시의 소란함에 지친 마음이 회복되고 편안하게 될 곳...집이 있고 정원이 있고 분수가 있는 기분 좋은 장소들...그들은 쉽게 행복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설계에 이르기 전에 그것들의 배치와 구조가 선택될 장소나 상황에 관련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공의 벽 혹은 이웃의 벽들에 의해 제한(도시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것처럼)되어 있지 않아서, 경계를 결정하거나 분명히 하는 그것

33) 다른 한편으로 인간 행위의 기준을 근거로 건물의 반사적/공적 (semi-private/public interior) 내부는 존재한다.

34) 두 종류의 내부로 이루어진 하나의 사회는 건축의 영역이다. 건축은 실내의 사적 영역/삶을 파악해야 하고 시내/영내의 공적 영역/삶을 파악해야 한다. 이렇게 실현된 건축의 형태는 인간 삶을 위한 하나의 사회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거기에 건축은 우리 삶을 위해 무대화되고 안정된 형태로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어서 ‘내부 공간(실내와 시내)의 사회를 연결하는 건축’은 건축이 개인을 위한 실내 방들과 공동체를 위한 시내 방들을 생산하고, 실내와 시내 방들의 사회가 하나의 사회로 통합될 수 있는 연결의 건축으로서 각각의 방이 구별되게 연결하여 연속된 공간의 사회를 형성하고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속된 내부 공간 실내, 시내, 영내의 사회’는 영내 방들 역시 건축에 의해 설정 및 중재되는 시내와 동일한 성격의 연속적으로 조직된 공간, 즉 의도된 의미의 공간으로 창조되는 영내 역시 디자인 대상 그리고 건축의 대상 공간임을 밝히고 있다.

요컨대, 건축은 두 종류의 내부(실내 방들의 사회와 시내 혹은 영내 방들의 사회) 사이에 매개와 경계 그리고 연결로서 건물의 형태로 존재한다. 따라서 그 형태는, 즉 건축의 미적 가치는 그것의 내적 요소와 외적 요소로부터 분리될 수 없고 연결되어 연속된 두 종류인 내부 사회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결국 실내건축/디자인, 건축, 조경건축, 도시계획에서 연속된 두 내부 사회의 통합 및 동시 인식은 두 내부 사회에 보다 나은 공간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거주자의 질을 향상할 수 있게 된다. 궁극적으로 연속된 내부의 사회가 공간을 단위로 하는 모든 프로젝트의 기본 기울기 되어야 하는 것은 공간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절연되거나 고립된 공간이 아닌 겹으로 되어 있는 하나의 연속된 내부 공간의 사회로서 도시 및 전원/시골계획에서 다루는 공간은 내부의 개념으로 디자인의 영역과 대상으로 포섭될 수 있다. 본문에서 논술했던 것과 같이 연속된 방들의 사회, 즉 연속된 내부 사회는 실내건축/디자인, 건축, 조경건축, 도시계획, 그리고 전원/시골계획에 있어 전체로 통합된 하나의 대상 공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디자인의 대상 공간으로서 실내와 시내 그리고 실내와 영내의 연속된 공간의 사회를 논술하고 있는 이 논문은 연속된 공간의 인식이 가져올 수 있는 가치들에 관한 앞으로의 연구에 이론적 기초와 근거 그리고 이와 관련한 활발한 사고와 담론이 일어날 수 있는 시작점을 제공하고 있다.

## 참고문헌

1. Abercrombie, Stanley, A Philosophy of Interior Design, Happer & Row, New York, 1990
2. Alberti, Leon Battista, The Ten Books of Architecture: The 1755 Leoni Edition (*De re aedificatoria*, written between 1443-52, first published in Florence in 1485), Dover Publications, New York, 1986
3. Archer, John, Architecture and Suburbia: From English Villa to American Dream House, 1690-2000, Th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2005
4. Arnheim, Rudolf, The Dynamics of Architectural Form, University

-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Los Angeles, London, 1977
5. Diodato, Roberto, Aesthetics of the Virtual,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Albany, 2012
6. Focillon, Henri, The Life of Forms in Art, Zone Books, New York, 1992
7. Heidegger, Martin, Poetry, Language, Thought, Perennial Classics, New York, 2001
8. Holl, Steven, Urbanisms: Working with Doubt,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New York, 2009
9. Kandinsky, Wassily, Point and Line to Plane, Dover Publications, New York, 1979
10. Le Corbusier, Precisions on the present state of architecture and city planning: with an American prologue, a Brazilian corollary followed by The temperature of Paris and The atmosphere of Moscow (translation by Edith Schreiber Aujame), MIT Press, Cambridge, MA 1991
11. Mills, Jon (ed.), Rereading Freud: Psychoanalysis through Philosoph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Albany, 2004
12. Norberg-Schulz, Christian, Genius Loci: Toward a Phenomenology of Architecture, Rizzoli, New York, 1980
13. Palladio, Andrea, The Four Books of Architecture, Dover Publications, New York, 1965
14. Pollio, Vitruvius, Vitruvius: The Ten Books on Architecture, Dover Publications, New York, 1960
15. Relph, Edward, Place and Placelessness, Pion, London, 1976
16. Venturi, Robert, Complexity and Contradiction in Architecture, Architectural Press, London, 1977
17. Wolfe, Linnie Marsh (ed.), John of the Mountains: The Unpublished Journals of John Muir,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Wisconsin, 1979
18. Zevi, Bruno, Architecture as Space: How to Look at Architecture, Horizon Press, New York, 1957
19. Bohigas, Oriol, "Spaziperl a gente." Spazio e società, n. 24, December, 1983
20. De Carli, Carlo, "Contro la realtàfinta." Interni, n.1, January 1967
21. Kahn, Louis I., "The Room, the Street and Human Agreement." AIA Journal 56, no. 3, September 1971
22. Roosevelt, Theodore, "John Muir: An Appreciation." Outlook, vol. 109, January 16, 1915
23. Louis I. Kahn's sketchbook, ca. 1969

[논문접수 : 2014. 12. 05]  
 [1차 심사 : 2015. 01. 25]  
 [2차 심사 : 2015. 02. 09]  
 [게재확정 : 2015. 03. 06]